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WINTER
제66호

Interview

영국 출신 안드류 밀라드

V-Log

체류 심사관 브이로그

Focus

한마음 걷기축제

Zoom in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KOREA IMMIGRATION SERVICE

표지 모델

◀ 영국 출신 안드류 밀라드



안드류
밀라드
가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Editor's L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장군의 기승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 우리 본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하였고, 완주 스마트팜 계절근로 현장과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외국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는 등 지역인재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비자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지방 현장의 제언을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인재의 국내정착과 안정적 연구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 본부는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에 대하여는 적시성 있게 정책을 마련하되, 불법체류자 등 범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등 국민 안전과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소중한 분들과 온기를 나누며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Dear readers,

The arrival of another winter means it is time to be prepared to say good-bye to this year. I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to this year's policies rolled out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Greater emphasis is being put on the importance of immigration policies as a tool to design long-term plans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wake of decreasing working age population and imminent extinction of rural communities. We have proactively worked throughout this year to design and introduce immigration policies that well-reflect the voice of foreign residents, which also earn support by the public at the same time.

We have implemented a creative pathway to expand the size of skilled workers – labelled as “K-point E74” – to assist industrial sectors suffering from labour shortages. Our officials also paid visits to Smart Farm in Wanju, which hires seasonal workers and Dalseong Industrial Complex in Daegu to survey whether foreign workers are employed in a proper fashion. In addition, we engaged in a dialogue with Korean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which offered us an opportunity to get valuable feedback in implementing successful visa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taining talents in the region and achieving balanced national growth.

More recently, we also paid a visit to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AIST) and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UNIST) and met face-to-face with international students to exchange opinions and had discussions on possible avenues to help the settlement of talented individuals and uninterrupted research activities free from visa issues.

W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ve invested efforts at our best capacit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by being agile in introducing policies to retain talented individuals and skilled workers, whereas being strict against immigration offenders, including illegal residents.

Our efforts will go forward to introduce immigration policies on par with global standar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organisation exclusively in charge of immigration affairs and pre-announcement of the total annual employment visa quota.

I sincerely hope all of you will have time to be with your loved ones and warm up your heart as the final chapter of this year is coming to a close.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support.

Sincerely,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등호(=)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을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가운데를 연결하는
등호(=)가 있어 같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같습니다.

나이, 성별, 언어, 피부색이 달라도
심장에 흐르는 피의 색은 똑같은 것처럼요.

공통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소외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해봅니다.



CONTENTS

2023. WINTER / Vol. 66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집:
‘공통’된 우리가 만드는 사회

06

Interview

글로벌 인재 유치에 앞장서는 영국 사위 안드류의 부산일기
영국 출신 안드류 밀라드

10

Story

이민자 멘토에게 듣는 한국생활 노하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여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KIS

14

Focus

세계인이 함께 즐길 힐링 대전지
제10회 한마음 걷기축제

18

Issue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K-point E74 시행

20

Zoom in

외국인의 편리한 전자민원 처리를 돕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24

V-Log

출입국 업무의 꽃, 체류심사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지혜 주무관의 하루

28

KIS News

함께



함께 만드는
‘공감’ 이야기

30

Memoirs

문화의 교차로를 넘나드는 여정
레오 란타

32

Proverb

감쪽같다·이판사판은 어디서 유래됐을까?

34

Culture

K팝의 경계를 넘은 K팝 아이돌

36

KIS-tub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7

Letter for KIS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06



14



20



24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낯선 나라로 모험을 떠나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취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상상한 것만큼이나 낭만적이고 유쾌하지만은 않은 과정의 연속이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술한 고충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유학생으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고 대학교수가 되기까지 혈혈단신 녹록하지 않은 한국 정착기를 겪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안드류 밀라드 교수. 그에게 '영국사위 안드류의 부산일기'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로벌 인재 유치에 앞장서는 영국 사위 안드류의 부산일기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안드류 밀라드



A n d r e w M i l l a r d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영국의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3년제로 구성돼 있어요. 몇몇 학과만 예외적으로 4년제인데, 2001년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언어학도 그런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이수 학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새로운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많았어도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그리 넓게 퍼져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특

이한 언어라는 생각에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류 교수는 KBS <인간극장>에 두 번이나 출연하여 능숙한 부산 사투리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가 출연한 '영국사위 안드류의 부산일기' 편은 <인간극장> 레전드 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후 부산KBS <아침마당>에도 고정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얼굴을 널리 알렸고 이제는 국립 창원대학교의 어엿한 교수로, 그리고 국제교류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엔 서울에서 생활했어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죠.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엔 아직 운영 중이던 금강산 관광에도 참여했었고, 버스를 타고 동해로 돌아온 뒤에는 서울까지 도보로 국토대장정을 하기도 했지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가 지나니까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모든 게 너무 크고 회색빛이고 온통 콘크리트 아니면 반짝이는 유리로만 뒤덮여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무렵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부산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사했다. 적당히 북적이는 사람들, 언제나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 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산들까지 모든 게 서울과는 달랐다. 그토록 마음에 들었던 도시, 부산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던 안드류 밀라드 교수는 다시 부산행을 선택했다.

“영국에서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지 못하던 시기가 길어졌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컸고요.”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그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아내 정선경 씨를 만난 것.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아내는 여행도 좋아하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는 씩씩한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돼 결혼까지 이르게 됐지요.”

영국인들은 19세 이후부터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에 안드류 밀라드 교수의 부모님은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 토박이인 장모님은 어땠을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모님을 처음 뵈려고 댁에 찾아가는데 저 안에서 ‘역수로’ 크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였는데 꼭 싸우는 것처럼 큰 목소리였던 거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 밝은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3년 전 돌아가셨지만 안드류 밀라드 교수는 아직도 생생한 장모님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다

안드류 밀라드 교수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였다. 어찌 보면 요즘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외국국적 방송인들의 선배격이라 할 수 있다.

“방송 출연이 재미도 있었지만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았

다양하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산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한 안드류 밀라드 교수는 박사과정을 밟던 중 부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EU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다. 덕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부산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면 통역을 비롯한 행사 진행을 맡게 됐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과도 친분을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 대표로 임명됐다. 당연히 안드류 밀라드 교수의 능력이 그들의 기대치에 부합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하는 한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행사를 주최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부산 내의 해양조선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안드류 밀라드 교수. 하지만 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꿈꾸다

현재 안드류 밀라드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곳은 국립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해 대한민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안드류 밀라드 교수는 지난해 9월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3개월 만에 국제교류원장으로 임명됐다. 그의 뛰어난 역량은 우수한 학생 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창원대학교는 판단했다.

“지방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인구감소라는 이슈 때문에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양하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우리 대학이 더 글로벌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방법은 더 많은 인재들이 창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2015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를 맡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회에 진출해 다국적 기업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제자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스승과 제자가 아닌 형님과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람을 느낀다는 안드류 밀라드 교수. 그의 개인적 소망은 의외로 소박하다.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기만 바라고 있어요. 물론 아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바람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웃음).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올 겨울방학에는 영국에서 어머니가 오실 예정이라며 웃어 보이는 안드류 밀라드 교수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애뜻함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든든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남다른 끈기로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 올린 그의 내공이 이제는 안드류 밀라드 교수만의 자산으로 빛나고 있다.



이민자 멘토에게 듣는 한국생활 노하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22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같은 기간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유학, 결혼이민, 취업 등 각자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택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초기 이민자는 문화와 언어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정책 홍보·자문 등을 위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발·운영하고 있다.

이민자 멘토 교육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과정)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배경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44만 명이 넘는 재한 외국인 등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가 재능을 기부하고 직접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민자가 주체가 되는 쌍방향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출범 시켰다.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한외국인(또는 귀화자)으로 구성된 이민자 멘토단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멘토교육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대상 상호문화 이해 관련 인식개선 및 홍보, 정책자문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현장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한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초기 이민자 등에게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이민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통합 구현

현원 35명 (남 18명, 여 17명)

출신국가 현황 21개국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2기 멘토단 활동 중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활동 내용

지난해 3월 위촉된 2기 멘토단은 21개국 출신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한외국인 대상 멘토 강의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 중인 이민자(멘티)들을 대상으로 멘토교육 강의를 통해 한국사회 적응기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극복방안, 한국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공유하며 멘티들이 한국에서 꿈을 위해 노력해나갈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강의 활동뿐만 아니라 멘토단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덕분에 챌린지' 참여, 내·외국인 간 상호소통 강화 영상 및 법무정책 홍보 영상에 참여하는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멘토단은 제39차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21.3.25.)와 전자여행허가(K-ETA) 관련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21.8.11)에 참석하여 외국인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들려주기도 했다.

멘토단의 제안을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도 있다. 2020년에 구성된 1기 멘토단의 제안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이 변경된 바 있다.

이는 재한외국인이 직접 정책개선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다.

법무부는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정례화도 추진하고 있다. '22년에 이민자 멘토단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플로깅)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존중·소통하는 이민통합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이민자 멘토단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이민자 멘토 교육 현장을 만나다

지난 11월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2기로 활동 중인 원두연 씨(베트남 출신 귀화자)의 이민자 멘토 교육이 진행됐다. 결혼이민자로 2012년 한국에 온 원두연 멘토는 베트남어 통·번역가,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멘토단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원두연 멘토가 초기 한국생활 적응 시절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공유하며, 수강생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귀화시험에 합격한 원두연 멘토는 후배 이민자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습할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다.

이민자 멘토단은 향후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가교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Gaining knowledge on living in Korea from immigrant mentors

Learning programmes offered by the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Mentor Group



What is the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Mentor Group?

It is a group of successfully settled immigrants with extensive knowledge on life in Korea, who act as mentors for early-stage immigrants by offering knowledge-sharing and advice. The prime objective of this Group i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spearheaded by immigrants.

👤 Currently 35 mentors are in the Group.

🌐 Nationalities represented: 21 countries.

The second batch of mentor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from March 2022 to date.



What activities do members of the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Mentor Group engage in?

Offering learning programmes for immigrants taking part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 ▶ Mentors provide them with advice on how to overcome difficulties during their initial stage of settlement and useful information on managing day-to-day issues.

Providing lectures for Korean nationals o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 ▶ Mentors take part in producing video lectures materials for government official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 ▶ Mentors provide lectures on introduction to immigration policies for government officials affiliated with key ministries.
- ▶ Mentors provide lectures for government officials affiliated with regional governments in charge of policies on foreign nationals.
- ▶ Mentors provide lectures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lecturers and multiculturalism experts o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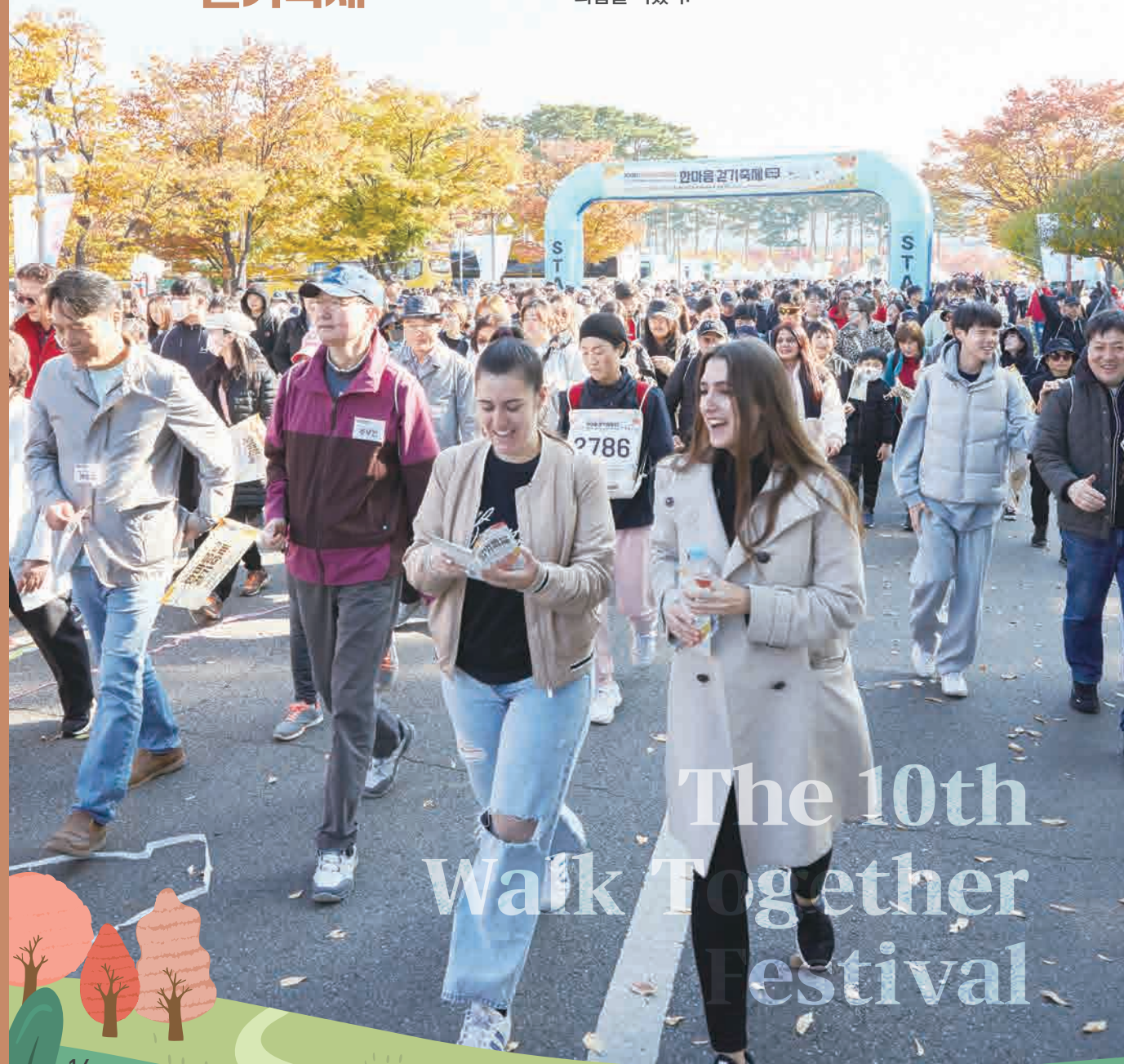
Providing advice to KIS on its policies and engaging in other activities

- ▶ Mentors provided advice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sing the name of ID cards issued to foreign residents.
- ▶ Mentors participated in video materials on Covid-19 prevention, promoting dialogue between foreign nationals and Korean nationals and promotion of policies rolled out by the Ministry of Justice.
- ▶ Mentors take part in meetings with the Prime Minister held every Thursdays whenever needed and attend meetings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on K-ETA matters.
- ▶ Mentors engage in activities targeted on raising awareness of the role of foreign residents.
- ▶ Mentors took part in plogging (a combination of jogging with picking up litter) activities in the Seoul downtown area adjacent to Cheongyecheon.

세계인이 함께 즐긴 힐링 대잔치

제10회 한마음 걷기축제

제법 쌀쌀해진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단풍이 가을의 끝을 알리던 10월,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제10회 세계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3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추억을 쌓으며 화합을 이뤘다.



3년 만에 돌아온 한마음 걷기축제

매년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개최되어 온 '세계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하 '한마음 걷기축제')은 세계인이 화합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9회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개최된 만큼 더욱 성대하게 돌아왔다. 정부합동 고충상담, 의료 지원, 세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축하 공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 가운데 유학생, 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내·외국인 참가자 3천여 명이 아침 일찍 개회식이 열리는 평화광장에 모여 설레는 모습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렸다. 태권화회의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화려하게 포문을 연 개회식은 이수구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의 환영사,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이재유 본부장은 "재한 외국인 여러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가을 풍경을 구경하며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질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리가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학교 문화와 관련해 뛰어난 창의력을 보여준 어린이·청소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외국인 방송인들과 치어리더팀 위너스가 무대에 올라 몸풀기 체조 시범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가뿐하게 몸을 풀 참가자들은 위너스의 인솔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향했다.





가을 풍경 만끽하며 걷고, 즐기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걷기는 하늘공원 둘레길 3.8km 코스에서 진행됐다. 출발지점에서 힘차게 발을 댄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걸음을 옮겼다. 누가 더 빨리 걷나 경쟁하기보다는 맑은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을 구경하고 가끔은 쉬어가기도 하며 여유로운 가을 풍경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걷기 코스에는 완주 의지를 불태우는 스탬프ラリー 이벤트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흥미를 돋우었다. 구역별 6개 부스에서 스탬프 6개를 모두 모아온 선착순 500명에게는 완보증과 함께 완주 기념품이 제공됐다.

출발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나자 선두로 출발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지점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먼저 도착한 이들은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거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평화광장 부스에는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보는 체험과 국가별 간식 시식, 투호-제기 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체험, 캐리커처 이벤트와 같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남녀노소 내·외국인 누구나 함께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가족과 함께 투호 체험에 참여한 중국 국적의 어린이 참가자는 “화살이 통에 잘 안 들어가서 아쉽다”면서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반려견을 동반해 부스를 구경하던 내국인 참가자는 “평소 자주 산책하러 오는 월드컵 공원에서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 참가했다”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내·외국인이 함께한 풍성한 즐길거리



걷기 행사를 마친 후 열린 본 공연과 폐회식에서는 다양한 축하 무대와 경품 이벤트가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준오 주무관이 전문 MC 못지않은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여 참가자들은 물론 공원을 찾은 행인들의 귀까지 사로잡았다.

안천중학교 학생들의 전통 북 연주로 시작된 축하 무대는 치어리더팀 위너스와 외국인 댄스그룹 레인보우의 K팝 커버댄스로 이어졌다. 남성 아이돌 그룹 메가맥스의 화려한 무대와 다문화 합창단 행복메아리의 합창이 진행되자 열광적인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무대 중간중간 열린 경품 이벤트에서는 퀴즈 정답을 맞히거나 즉석 댄스를 추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참가자들을 비롯해 걷기 행사에 등록된 번호를 추첨하여 당첨된 여러 내·외국인 참가자들이 에어프라이어, 압력밥솥, 냉장고, TV 등 다양한 상품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한 외국인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도 진행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체류, 국적, 사증 등의 출입국 관련 법령은 물론 자녀 교육, 취업, 생활법률 등 재한 외국인이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 부스를 열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찾아와 각종 고충을 털어냈고, 담당자들은 진지하게 들어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합동 고충상담 부스에서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K-point E74(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관련 설명회도 함께 열려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한 유학생 참가자는 “날씨도 좋고 친구들이랑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즐겁다”며 “너무 늦게 알아서 이번에는 참가 신청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친구들과처럼 꼭 참가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K-point E74 시행

출생률이 감소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01 대상 외국인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최근 10년간 E-9·E-10·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한 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인 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자·불법체류 경력자 등은 제외 대상

02 점수표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 최대 120점
2,500만원 이상 50점 / 3,500만원 80점 /
5,000만원 이상 120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TOPIK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단계·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60점 50점 / 3급·3단계·
61~80점 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120점
- **나이** : 최대 60점
19~26세 40점 / 27~33세 60점 / 34~40세 30점 /
41세~ 10점

03 고용사업장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숙련인력 고용 가능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 제외

04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3.9.25. (월)부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고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Introduction to the newly implemented K-point E-7-4

01 Eligible individual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ould be met.)

-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staying in Korea for 4+ years with an E-9/E-10/H-2 visa during the past decade
- Individuals with an employment contract effective for the next 2+ years on a E-7-4 visa who earn an annual salary of at least KRW 26 million
(The minimum salary requirement is KRW 25 million for individuals engaged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fishery or inland shipping sectors.)
- Individuals who secured recommendation from his/her company with an employment history of one year or more
- Individuals who score at least 200 points (incl. additional points) out of 300, with at least 50 points each from his/her average salary level and Korean language ability

* Note: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being fined KRW 1 million or more or illegal stay will not be eligible for K-point E-7-4.

02 Point table

- **Average annual salary during the last two years:** Maximum 120 points
KRW 25 million+: 50 points, KRW 35 million+: 80 points, KRW 50 million+: 120 points
(The minimum salary requirement is KRW 24 million for individuals engaged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fishery or inland shipping sectors.)
- **Korean language ability:** Maximum 120 points
 - TOPIK level 2,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level 2, 41 ~ 60 points from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preliminary evaluation: 50 points
 - TOPIK level 3,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level 3, 61 ~ 80 points from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preliminary evaluation: 80 points
 - TOPIK level 4,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level 4, 81 points or more from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preliminary evaluation: 120 points
- **Age:** Maximum 60 points
19 ~ 26: 40 points, 27 ~ 33: 60 points, 34 ~ 40: 30 points, 41 and older: 10 points

03 Requirements from businesses

- Businesses should be hiring one or more people with an E-9/E-10/H-2 visa without any issue, under the existing skilled worker points-based system.
- The size of foreign workers should not exceed a maximum of 30% of the total size of Korean national employees.
* Businesses engaged in Ppuri industries and businesses located in depopulating areas are specially allowed to employ foreign workers, up to 50% of the total size of Korean national employees.
- Businesses with a national/regional tax delinquency history will not be allowed to hire foreign workers under the new scheme.

04 Application period and details

- **Date:** 25 September 2023 (Applications can be made any time during this period until the quota is filled.)
- Only online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through Hi Korea e-petition. Please visit www.hikorea.go.kr and read announcements for details.
-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eac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by calling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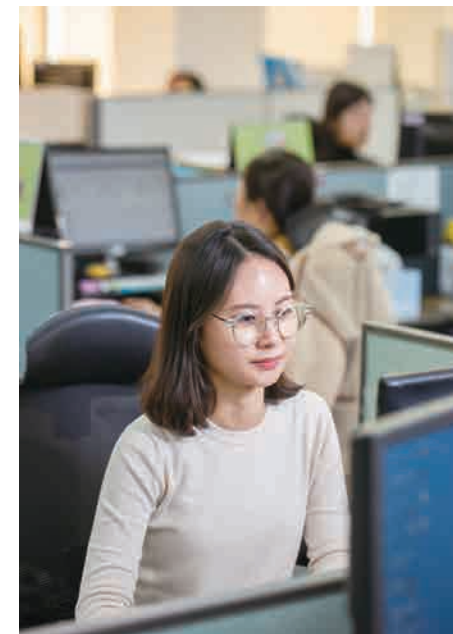


✨ 외국인의 편리한 전자민원 처리를 돕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체류, 사증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전자민원의 절반을 담당하며, 쏟아지는 업무량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로 찾아가 본다.



전자비자센터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자민원 처리를 비롯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편리한 전자민원,
전자비자센터가 처리합니다



전자민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체류지 변경·거소 이전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출입국 체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민원인이 관할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 20% 감면 혜택도 제공돼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이하 전자비자센터)는 이처럼 전국 9개 출입국관서(서울·서울남부·세종로·수원·평택·천안·안산·고양·목포)에서 관할하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자민원 처리를 비롯해 전자팩스 민원 처리와 해외에서 신청하는 단체관광 전자사증, 개인전자사증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그 밖에도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 상담과 각종 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영어·중국어 등 20개국 언어로 제공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콜센터)와, 국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인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관리도 병행한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올해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접수가 시작된 중국 및 동남아 단체관광 전자사증 등의 신청 폭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전자비자센터에 접수된 전자민원은 총 27만 5,304건으로 전국 전자민원 처리 건수의 49.8%에 해당한다. 전자비자 처리 건수는 같은 달 기준 89,541명(8,604건)이다. 이처럼 전자비자센터는 전국에서 쏟아지는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원활한 전자사증 발급,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전년 대비 급증한 민원량

전자비자센터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소속 부서 중 하나로, 공무원 9명과 공무원 4명, 청년 인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여러 관할 지역을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점은 전자비자센터 직원들의 숙명 아닌 숙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전자민원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올해는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도 많아지면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전자민원이 약 40% 증가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 또한 18만 9,397명(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9% 급증해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자비자센터의 업무 역시 늘어난 상황이다. 근무 인력이 변함없는 상황에 전자민원 신청 건수가 많아지며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적체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악성 민원과 국민신문고도 증가하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 전자민원의 처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다. 전자비자센터 직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접수일로부터 3주 정도면 처리가 됐는데, 올해 전자민원량이 늘어나서 5~6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대하셨던 것보다 오래 걸리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며, 직원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전자비자센터 직원들은 끈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센터장과 팀장을 필두로 업무와 관련한 고충이나 업무처리 방안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구성원들이 바로 전자비자센터의 장점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전자비자센터

전자비자센터가 속한 서울청은 최근 큰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된 ‘제10회 한마음 걷기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던 것. 이번 행사는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자비자센터 직원들도 ‘한마음 걷기축제’에 투입돼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전자민원, 전자사증 등을 안내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등 손길을 보탰다. 전자비자센터 직원들은 “한마음 걷기축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는데, 주말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축제의 성공적 개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 같이 열심히 일했던 것이 보람 있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비자센터 배용호 센터장은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본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향후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전자비자센터의 변화가 기다려진다.



Mini INTERVIEW

“폭넓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배용호 센터장

전자비자센터에서는 전자민원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전국 9개 출입국관서의 체류 민원과 개인 및 단체전자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및 E계열 전문인력 등에 대한 개인비자 발급, 콜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량 폭증과 국민신문고 등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비자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근 핫플레이스

안양천

봄철 벚꽃 명소로 유명한 안양천을 추천합니다.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든 산책하거나 달리기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 박소연 -

파리공원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언제 가도 좋은 곳입니다. 업무로 지쳤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김가윤 -

오가네찹쌀순대

전자비자센터 인근 맛집인 오가네찹쌀순대에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곱창전골이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 전혜정 -

월촌도야지

목동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식당입니다. 센터 직원들, 친구들과 자주 찾는 맛집입니다. 이곳 메뉴는 다 맛있는데 특히 삼겹살을 추천합니다.

- 임주연 -

V-LOG

출입국 업무의 꽃,
체류심사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현지혜
주무관의
하루

경기도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지난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되면서 전국 사무소 가운데 가장
많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속 지구촌에서 이주민과의
사회통합과 건전한 체류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상생하는
안산사무소 체류심사 담당 현지혜
주무관을 만나 그가 근무하는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하루를 따라가본다.



AM 08:30

바쁜 하루의 시작

저는 안산 다문화특구에 위치한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이하 이주민센터)에서 민원응대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접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100여 개 나라에서 이주해 온 10만여 외국인이 살고 있고, 관할 외국인이 국내 등록외국인의 14%에 해당하는 만큼 저희 센터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항상 복잡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안산시·안양시·시흥시·군포시·광명시)
거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174,634명(22.12. 기준)



AM 08:40

업무 시작 전 팀 회의

본격적인 민원 업무가 시작되기 전 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새로 바뀐 지침이 있는 경우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전날 있었던 특이 민원 등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죠. 저희 센터는 여섯 명이 근무하는데 리더십과 따뜻함을 겸비한 센터장님, 민원 응대의 베테랑인 고참 계장님 두 분을 필두로 완벽하게 이상적인 조합을 자랑합니다.



AM 09:00

체류심사

체류심사는 비자 연장·변경·근무 허가 등 외국인이 한국에 살기 위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일 평균 230건 정도의 체류접수를 받는데, 예약자와 비예약자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화장실 한 번 못 갈 만큼 바쁩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판단과 결정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체류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신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AM 11:00 원스톱이주민서비스 지원

이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상담, 한국어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기관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원스톱 업무를 시작했고, 현재 고용노동부 직원 한 분이 주 2회 출근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PM 12:00 점심식사 및 휴식

저희 팀원들은 대부분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1평 남짓의 유일한 휴게실 겸 회의실에 옹기종기 붙어 식사하는데, 불편하지만 그만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카페에 가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아 참! 저희 팀원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귀찮더라도 꼭 텀블러를 챙겨가서 커피를 마신답니다.

PM 01:00 오후에도 계속되는 체류심사

사실 우리 센터의 체류 업무는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류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언어권의 민원인들로 보통 손짓, 발짓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합니다. 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지만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PM 03:00 민원 안내

오후에는 비예약 민원인에게 번호표 교부나 민원안내도 합니다. 다른 사무소에선 사회복지요원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로 지원하는 업무지만 우리 센터는 인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곳 센터는 ‘작은 지구촌’답게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민원인들이 방문하십니다. 다양한 언어권의 민원인들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PM 06:00 오늘도 무사히 퇴근

예전에 대기시간이 많이 밀려 물 한 잔 못 마시고 일하고 있는데 민원인 한 분이 커피를 건네며 “공무원도 사람인데 보기 딱하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시면서 일하라며 맛장구치셨고요. 사양하긴 했지만 이럴 때면 아직 사회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태도로 민원인들을 맞이하겠습니다.

현지혜 주무관

“체류질서 확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출입국행정의 최전방으로서, 이주민과의 사회통합 및 건전한 체류질서 사이의 균형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사회통합의 중심 이념과,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체류질서 확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 Hours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WINTER Vol.66



전라북도 방문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울산 정책현장 방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문

법무부 장관, 정책현장 방문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전라북도를 방문해 법무부-전라북도 간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하고, 완주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 현장을 점검했다.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17일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 글로벌 인재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외국인 교수, 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 방문하여 선박 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하여 과학기술 인재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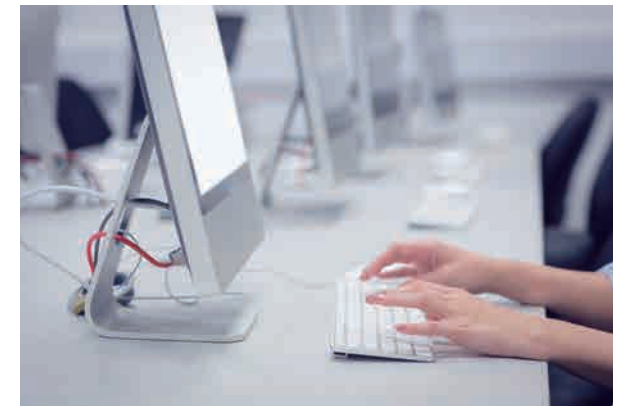
출입국 직원, 쓰러진 일본 승객에 심폐소생술

지난 11월 7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심사장에서 70대 일본인 승객이 대기 도중 갑자기 쓰러지자, 현장을 감독하고 있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종섭 팀장이 곧바로 쓰러진 승객에게 달려갔다. 정종섭 팀장은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다른 2명의 직원에게 쓰러진 승객의 팔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자신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은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의 이와쿠라 히로후미 시장(市長)으로, 출입국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한 뒤 지난 11월 21일 퇴원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종섭 팀장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지난 11월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0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정책은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민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핵심은 한국어 능력에 있다"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추가 설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이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 평가 기회가 확대되고,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외국 숙련인력의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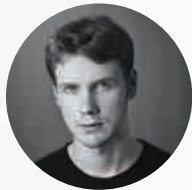
법무부는 지난 11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는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이민정책 활성화 관련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방향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의교차로를

넘나드는 여정



글 레오 란타

나의 성장 스토리는 핀란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아우르는 특별하고도 다양한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후 100일이 된 갓난아기였던 나는 부모님 품에 안겨 대한민국으로 왔다. 나의 어린 시절은 한국의 조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다. 보통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아버지의 선택은 내가 한국을 중점에 두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핀란드로 돌아가 2년 동안 핀란드어로 글 쓰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 입장에서 핀란드인인 내가 핀란드어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적응하기도 전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또다시 핀란드로 떠났다. 한국에서 치러야 하는 수능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핀란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핀란드 대학입시를 본 뒤 핀란드에서 의무 군대 생활까지 끝냈다. 어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시련이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에서의 삶은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내서 그런지 핀란드에서의 생활은 나와 맞지 않았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토록 쓰고 싶었던 한국 말을 쓰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 이렇듯 두 나라를 오가는 분주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과 핀란드 교육체계의 차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엄격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핀란드에서는 학생 중심의 여유로운 교육 환경을 체험했다. 다시 그 시절, 나의 유년기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여정이다.

30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이 다이나믹한 사회에 뿌리를 두게 되었다. 한국어에 자신이 있었기에 만약 다른 나라에서 생활해야 했었다면 너무나도 아깝고 후회되는 시간으로 남았을 것이다. 진로를 고민할 때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한국어 능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어떨까 싶었다. 방송은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나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있어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은 단순히 언어적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기찬 나라, 한국에서의 나의 삶을 풀어내는 열쇠와 같다.

나의 한국어 특기를 활용하여 유튜브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를 세계인들과 함께 탐험하며 공유하고 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많은 이들과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나의 많은 목표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의 간극을 좁히고 내가 그랬듯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을 이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고 싶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고 문화 통합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게 팁을 드려야 한다면 꼭 한국어를 배우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레오 란타

핀란드 출신으로, 생후 100일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성장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하며 콘텐츠 크리에이터, 방송인, 사업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감쪽같다 이판사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감쪽같다

사전적 의미는 '구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아니하다'이다.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재빨리 되돌려놓아 아무도 모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감쪽같다는 말의 어원에는 여러 설이 있다. 곶감이 귀했던 옛날에는 '우는 아이에게 곶감을 주면 울음을 툇 그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곶감을 좋아했다. 그러나 귀한 음식이어서 자주 접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곶감을 받으면 뽀기기라도 할까 봐 재빨리 먹어치웠다. 감쪽은 곶감의 쪽(조각)을 가리키는 말로, 아이들이 곶감을 얼른 먹어 없앴다는 의미에서 감쪽같다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또 다른 설은 '감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감접이란 감나무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의 줄기에 접붙여 나무를 키우는 방식이다. 나뭇가지를 붙여 1년 정도 지나면 원래 한 나무였던 것처럼 잘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게 감접을 했다고 해서 '감접같다'는 말이 생겨났다. 이 말이 '감쩍같다'에서 '감쪽같다'로 변해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우리 말에는 자주 쓰이는 표현임에도 정확한 의미나 그 유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흔히 사용되는 말들 가운데 흥미로운 유래가 있는 표현 두 가지를 만나본다.



이판사판이다

올해 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야." 이판사판은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불교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불교 사찰의 승려에게는 이판승(理判僧)과 사판승(事判僧)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 이판승은 수행에 힘쓰며 승려의 본분을 다하고, 사판승은 사찰의 살림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업무에 따라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았고 두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던 고려와 달리 유교국가였던 조선은 억불숭유(抑佛崇儒·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다)에 의해 불교를 억압했고 승려도 천대받는 신분이었다. 그래서 이판승이든 사판승이든 조선시대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막다른 선택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이판사판은 막다른 곳에 이르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상황이나 처지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표현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상황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K팝의 경계를 넘은 K팝 아이돌

K팝의 인기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면서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추세다.

이제는 한국인 멤버가 없거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K팝 그룹도 등장하고 있다.

K팝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팝 그룹을 소개한다.



블랙스완

벨기에, 독일·브라질, 인도, 미국 출신 멤버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이다. 처음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이었지만 한국인 멤버들이 2022년 탈퇴해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K팝 그룹이 됐다. 이들은 대부분 한글 가사로 된 노래를 소화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lackswan

웨이션브이

2019년부터 중화권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SM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으로 중국, 태국 등에서 온 여섯 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NCT 그룹의 유닛(소그룹)으로, 주로 중화권에서 활동하므로 중국어 가사로 된 곡을 부르지만 글로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어, 영어, 일어 등으로 구성된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다.



Wayv

캣츠아이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와 미국 음악 레이블이 한미 합작으로 진행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배출한 걸그룹이다. 한국, 미국, 필리핀, 스위스 등에서 온 6인 멤버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출연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2만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캣츠아이는 2024년에 정식으로 데뷔할 예정이다.

Katseve



니쥬

JYP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서 진행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이다. 아홉 명의 멤버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데뷔 이후 꼭 일본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활동 반경을 넓혀 한국어 가사로 된 곡을 발표하고 한국에서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렉사

한국계 미국인인 여성 솔로 가수로 2019년 데뷔했으며,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 2022년 미국의 지상파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고향 오를라호마주 지역 대표이자 K팝 가수로서 참가해 최종 우승해 화제가 됐다. 이후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다.

AleXa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1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

facebook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5천 명 확대 시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일정 및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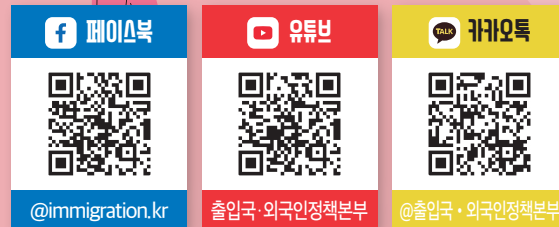
#2

202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달력 제작

kakao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3년 시행한 주요 정책을
테마로 2024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
진심이 담긴 친절과 배려로 민원인들의 칭찬 대상자가 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개한다.

미래를 바꾼 고마운 담당자



아내의 결혼 이민 비자 발급에 혹여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담당자님이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부족한 서류도 확인해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
니다. 덕분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미래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OO 씨

인내와 친절로 도와주셨어요



노령으로 이해가 부족한 저에게 인내와 친절로 설
명해주시고 행정 처리 과정을 도와주신 최현기 담
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 점이 놀랍고 그런 대
한민국에 훌륭한 담당자님이 계심에 새삼 고마울
뿐입니다.

OOO 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 업무를 담당하는 고준
섭입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진심
을 알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주신
칭찬에 힘입어 저를 스쳐 가는 모든 분들이 행복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준섭 주무관

“우리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국적 상실·회복 혹은
외국인의 귀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많은 민원인 분들과 상담하며 사람에게 상처받
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덕분
에 마음은 통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최현기 주무관

공존 공감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WINTER
Vol.66

EVENT #1

독자 의견

2023년 <공존> 겨울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5일(금)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4년 1월 9일(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 전국 9개 출입국관서에서 관할하는 체류 외국인의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이민특수조사대 ② 전자비자센터
- ③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④ 체류관리과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정답 마감 2024년 1월 5일(금)
당첨자 발표 2024년 1월 9일(화) 당첨자 개별 통보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01 국적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2년 내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원정출산 아님 경우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02 국적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남성)
- 시기**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장소**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03 국적상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사무소

04 국적보유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카카오톡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검색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 +82-2-6908-1345-6)



국적종합정보 친구추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